

박 '현장중심' 문 '정책소통' 안 '특강정치'

유력 후보들 차별화된 '표심잡기' 행보

12·19 대선을 30여일 앞두고 유력 대선후보들이 자신의 강점을 극대화하는 일정을 소화하며 차별화된 '표심잡기'에 나서고 있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현장 속으로'로 뛰어 들었고,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는 정책과 소통을 결합한 '정책소통' 전략을 구사 중이며 무소속 안철수 후보는 '특강 정치'를 가속화하고 있다. 박 후보는 급주 들어 호남을 필두로 '2차 전국투어'를 시작했다. 기존 지방 방문이 권역별 선대위 출범식 참석, 현장 정책발표 등 이벤트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이번 전국투어에서는 유권자들과의 스킨십을 강화하기로 했다. 자신의 '대중적 인기'를 최대한 활용, 밀바닥 민심을 움직여 야권 단일화 변수에 대응하겠다는 전략인 셈이다. 또 좀처럼 외부에서 속박하지 않는 그가 '1박2일' 일정을 선택, 전남 호남을 방문하고 담양에서 하룻밤을 묵은 뒤 13일에는 대전·세종·충남을 돌며 12월 대선의 승부처 중 한 곳인 충청권을 방문했다. 문 후보는 그날그날 특정한 주제를 정해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정책과 일정의 결합이 그것으로, 현장에서 목소리를 듣고 이를 기반으로 정책을 준비·발표한다는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일반적으로 정책을 발표

하기보다 일반 서민에게 다가가 가려운 곳을 긁어줌으로써 다른 후보와의 비교우위에 선다는 전략이다. 문 후보 측 관계자는 "정책의 콘셉트와 내용을 기반으로 일정을 준비하는 동시에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녹여내는데 주력하고 있다"며 "정책과 일정의 선순환 구조인 셈"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문 후보는 장수마을에서 주거복지 정책을, 시장에서

경제민주화 정책 등을 발표한 데 이어 이날 전대일 열사 42주기를 맞아 전대일 재단과 민주노총·한국노총을 차례로 방문, 임기 내 비정규직 절반 감축, 노동기본권 신장과 노동자 경영참여 확대, 사회적 대화 활성화 등의 노동민주화 공약을 발표했다. 안 후보는 '특강 정치'로 승부수를 띄운 상태. 정당을 기반으로 하지 않는 무소속 후보라는 점에서 일정짜기가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전국에서 다발적으로 열리는 정당 행사 자체가 전무하고 선거법상 각종 제약도

감안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안 후보 측은 이를 제약이라기보다 '정치 혁신'의 새로운 모델로 받아들이고 있다. 오히려 특강을 적극 활용, 야권 단일화를 비롯해 대선 국면에 굳어진 화두를 던지고 있다. 안 후보는 지난달 11일 청주교대 강연에서 민주당 측의 정당후보론에 대해 "어처구니없다"고 정면 비판한 데 이어 지난 5일 전남대 초청강연을 통해 문 후보에게 '단일화 회동'을 전격 제의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가 13일 오후 대전 유성구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을 방문, 배추를 골라 들고 있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무소속 안철수 대선후보가 12일 밤 서울 삼성동 메가박스 코엑스점에서 촬영된 영화 '남영동 1985' 시사회에 참석해 기자들을 향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연남수

황우여 "호남발전 새 그림짜야 할때"

강운태 시장과 현안 논의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13일 "미래의 땅 호남의 발전을 위해 새 그림을 짜야 할 때"라고 말했다. 황 대표는 이날 오후 광주시청을 찾아 강운태 시장을 만난 자리에서 "호남은 (정부 여당에 대한) 루트가 없어 지역민들의 민원을 적다 보면 수월한 편이 부족할 정도"라며 "호남에서 많은 공부를 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황 대표는 "이제는 구체적으로 새 그림을 그려야 할 때"라며 "호남을 위한 호남이 아니라 서해안 시대, 내륙시대를 대비한 공약을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강운태 시장은 "(황 대표)가 광주에 계시니까 든든하다"며 "국회에서 내년 예산에 대해 계속조정에 들어가는데 황 대표께서 광주 예산을 챙겨 달라"고 협조를 당부했다. 강 시장은 이어 ▲광주 상품거래소 설립(20억 원) ▲한국에너지 기술연

구원 광주분원 설치(70억 원) ▲KTX 주변환경개선사업(50억 원) 등 3가지 사업비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 이에 황 대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황 대표는 또한 2019 세계수업선수권대회 광주 유치 노력에 대해 "수영 저변 확대에 기회가 될 것"이라며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강 시장을 만나기에 앞서 시청 실·과를 돌며 공무원들과 인사를 나눴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정가라운지

새누리, 광주·전남 대선 필승결의대회

새누리당 광주시당과 전남도당이 18대 대선 필승결의대회를 열고 본격적인 선거제에 돌입한다. 새누리당 광주시당과 전남도당은 각각 14일과 15일 광주 북구 중흥동 당사 6층 대강당에서 중앙당 선대위 관계자와 지역 당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18대 대선 필승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필승 결의대회에는 황우여 대표최고위원을 비롯한 홍문종 중앙당 조직본부장, 이정현·유수택·김용달·정승 공동선대위원장 등이 참석한다. 결의대회는 박근혜 후보의 동영상 상영, 담합 벌 필승결의 구호 제창, 필승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됐다.

호남후 측 "트럭연설 차 선거법 위반"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 측은 13일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전남 광주역 광장에서 트럭에 올라 마이크를 잡고 연설했다며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진성준 캠프 대변인은 이날 영등포 당사 브리핑에서 "선거법은 사전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확장정치와 차량 운동을 금지하고 있다"며 "4·11 총선 때 새누리당 손수조(부산 사상구) 후보와 함께 차량에 올라 선거운동을 했던 박 후보가 다시 선거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선관위는 엄정 조사해서 의법 처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안후보 부인 김미경씨 여수 모교 방문

안철수 대선 후보 부인 김미경 서울대 교수가 오는 15일 모교인 여수 동초등학교를 방문한다. 김 교수는 전남 동부권 방문 첫 방문지로 자신의 모교인 여수 동초등학교를 방문해 교사들과 환담을 하고 일일교사 체험을 할 예정이다. 이어 고향으로 이동해 도양읍 국립 소록도병원을 찾아 병원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원생들과 만남의 시간을 갖는다.

이용섭, 국립치의학연구원 법안 발의

민주통합당 이용섭(광주 광산 을)의원은 13일 "치과 의료산업 육성을 위한 국립 치의학연구원 설립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며 "앞으로 치의학연구원의 광주

유치에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내 치과 의료 산업은 세계적으로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고, 국가 신성장동력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이 충분함에도 치의학에 대한 정부 차원의 투자가 매우 미흡하다"며 "정부 차원의 연구개발 투자 확대와 산학연 중심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연구기관 설립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노희용, 주민제안 150여 건 접수

노희용 민주통합당 광주 동구청장 예비후보는 14일 페이스북·트위터 또는 블로그 및 SNS를 통한 주민제안 접수 10일 만에 150여 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접수 의견 중에는 ▲광주 중심 동구의 부활 ▲충장로를 문화·젊음의 거리로 육성 ▲구민 섬기는 구청장 ▲복지 사각지대에 따뜻한 관심을 ▲무등산 보리밭 전국화 ▲전국 푸른길 걷기대회 개최 통해 녹색 동구 이미지 홍보 ▲흙이 있는 놀이터 설치 등의 제안이 담겼다. 노 예비후보는 "소중한 주민의견을 중시할 수 있는 제안들은 전문가 자문을 받아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경남선관위 '투게더 코리아' 행사

전남도·경남도 선관위는 15일 경남 하동군 화계장터에서 제18대 대선과 관련, '깨끗한 선거기원 Together Korea' 행사를 개최한다. 이날 행사에는 양 지역의 정당 대표자와 시민·사회단체 대표자 및 종교단체 대표자, 일반 유권자 등 3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지역갈등 해소와 국민화합으로 바르고 깨끗한 선거실현을 위해 실시되는 이번 행사에서 전남·경남 시민·사회단체 및 종교단체 대표자들이 대국민 공명선거 실현 호소문을 낭독하고, 주요 정당의 전남·경남도당 대표자들이 이번 대선이 준법·정책선거가 될 수 있도록 실천의지를 다짐한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박지원, 영광 '기초의회 의장단 연수' 참석

"단일화·정권교체 호남민심이 관건"

민주통합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13일 "야권후보 단일화의 관건은 호남 민심"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영광군의회에서 열린 '전남 기초의회 의장단 연수'에 참석해 "국민은 민주당에 정권을 줄 준비가 돼 있고, (이제) 민주당이 준비해야 할 차례인데 그것은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라며 "호남만으로 정권교체를 할 수 없지만, 야권이 호남을 빼고는 정권교체를 이룰 수가 없다. 이번 대선은

호남인에게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박 대표는 "과거 양 김(김대중·김영삼)은 단일화에 실패해 노태우 정권이 탄생했고 군정종식을 못시켰다"며 "두 분은 권력욕이 강한 분들이었지만, 문재인·안철수 후보는 권력욕이 강하지 않고 양보를 많이 한 분들이어서 국민의 명령에 따라 단일화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 대표는 "민심의 흐름을 잘 알고 득표활동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분들이 기초의원들이고, 기초의회의 장들"이라며 "여러분의 협력에 따라 단일화와 본선의 승리가 결정된다"며 기초의회 의장들을 독려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부패혐의 쫓겨 노무현 자살했다"

새누리 합당 이인제 막말 파문

새누리당과 합당을 의결한 선진통일당 이인제 대표가 13일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 "부패혐의에 쫓겨 자살했다"고 주장, 논란이 일고 있다. 이인제 대표는 이날 오후 박근혜 대선후보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새누리당 세종시당 선대위 발대식에서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를 비판하면서 노 전 대통령에 대해 언급했다. 이 대표는 "야당의 한 사람, 오직 정치적 경험은 대통령 비서라는 것밖에 없다"며 "자기가 모시던 대통령이 부패혐의에 쫓겨 자살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정치적으로 그 사람은 영원히 죄인일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며 "그 사람이 나와서 대통령을 하

겠다고 큰소리 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고인의 죽음을 매도했다"며 즉각 반발했다. 민주당 김 현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인제 의원의 발언 자리에는 박근혜 후보도 함께했다고 하는데, 돌아가신 전직 대통령의 죽음마저 매도하고 조롱하는 것이 박 후보의 인식, 새누리당의 수준인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허영일 부대변인은 이날 서면 논평을 통해 "이 의원이 대한민국 국회의원이란 사실 자체가 부끄럽다. 배신의 아이런, 철새 종결자 이 의원이 감히 누구한테 부패 운운하느냐"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신용카드 한도 구매
사용한도만큼 현금으로!

상품권 매입

최고가 매입, 최저가 판매
법인개인 출장가능!

현금필요하신분
3분이내 즉시해결!

H. 010-2082-6353
TEL. 062)383-6364

맘뉘려 애써 보임을 찾는 남·여사원을 모집합니다.
텔레마케팅 0명 업무직 0명
지역담당 0명 관리직 0명
위와 같이 모집하오니 이력서 지참 방문하시거나 우편접수 가능합니다.
주소 : 광주광역시 동구 동명동 197-30

성공을 부르는 말하기 기술 http://www.kleader.kr

스피치 리더십 과정
제24기 수강생 모집!!

말 잘하게 하는 특별한 방법
어머니 스피치 교실
제 3기 수강생 모집

초·중·고 대학생 등을 위한 **맞춤형 스피치교육**
스피치교육은 단순히 스피치만 잘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스피치를 잘하게 됨으로써 교육관계에서 리더가 되고 자신감을 갖게 됨으로써 공부도 열심히 하게 되어 성격도 올라가게 되어 성격이 적극적으로 변하는 등 인생이 변하게 됩니다. 스피치 트레이닝을 빨리 할수록 효과가 월등해 집니다.

교육지사·가맹점 모집 중
☎062)222-2255 / HP. 010-9441-7000
한국스피치리더십교육원 (전화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문을 우송해 드립니다.)

사정상·급매
신안동 제일오피스텔(사무실전용)

- 14층 건물 중 2층 코너 50평
- 주차 3대 무료, 대형 주차장
- 실내인테리어 2000만원 소요
- 용자 3천만원~5천만원 정도 가능
- 현, 보 1천만원에 월 50만원 임대중
- 급매가 8500만원(시세 1억1천만원)
- 일시불 매매시 조정가능

문의 : 010-3605-5000
010-4667-9300

못 받은 돈
친절히 상담해 드립니다.

- 공증문서
- 대여금
- 법원판결문
- 운송료
- 각종채권
- 구상금
- 물품대금
- 공사대금

· 채무자 전국 재산조사 가능
· 채무자 신용조사
· 법인재산조사, 신용조사
법원 재판중인 사건 확인

의뢰시 수수료없음
(회수금에 대한 후불제도)
필요에 따라 법무비용은 채권자 부담

"타 신용정보사와 비교 탁월한 회수실적"
"전국 지점으로 전국 소재 파악"
"수시로 의뢰인에게 상황보고"

세일신용정보(주)
전문상담 010-8617-7899